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
함께 만드는 행정수도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11. 25.(수)	**사진 · 영상**	사진(O), 영상(X)
보도일자	2026. 11. 25.(수)부터		
제공	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	**김동빈**	044-300-7172

[5분 자유발언]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, 마을회관 활용한 관광 활성화 · 노인복지 확대 촉구

- 마을회관 게스트하우스 시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 도모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(부강면·금남면·대평동, 국민의힘)은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, 마을회관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르신 복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

김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 경로당을 겸하는 시설을 포함해 마을회관이 350곳 넘게 있다며, 회관마다 방 두 칸씩 활용하면 700개 이상의 숙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 주민이 우선 이용하되 사용 일정이 없는 날에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식이다.

또한 관광객이 마을회관에 숙박하며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. 숙박료에서 청소비와 공과금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을 어르신 공동 식사에 활용하면 실질적인 노인복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.

김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이 ‘시민과의 대화’에서 한 이장의 건의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. 당시에는 집행부로부터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, 이후 관련 법과 운영 방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제안했다.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지정과 시설 기준 충족을 통한 운영 가능성도 제시했다.

이에 ▲이장회의를 통한 참여 마을 발굴과 관계 부서 합동 현장점검 및 시범 운영 ▲지역 관광자원과 농산물 구매를 연계한 여행 코스 개발·홍보 ▲숙박객 수와 농산물 판매액, 어르신 식사 지원 실적 관리 ▲국비 공모를 통한 마을회관 시설 개선과 화장실·샤워시설 보강을 세종시에 제안했다.

끝으로 김 의원은 마을회관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관광 활성화와 소상공인·농가소득 증대, 노인복지를 함께 실현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. 아울러 지역 자원과 주민의 지혜를 활용해 세종시만의 도농상생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.